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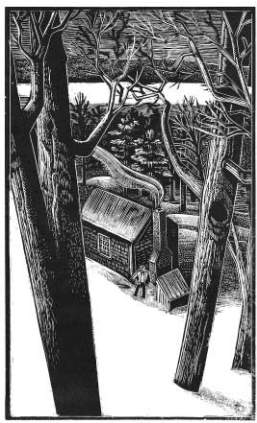


잠든 영혼 일깨우는 소로우의 편지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
헨리 데이빗 소로우 지음
류시화 옮김
오래된미래 펴냄
9천5백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목수, 측량 기사 일을 하던 헨리 데이빗 소로우(1817~1862)는 문명을 등지고 미국 콩코드 윌드 호숫가의 손수 지은 오두막에서 자연주의자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2년 2개월 뒤인 1848년 그가 다시 고향 콩코드 시내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콩코드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우스터에 사는 신학자 블레이크가 보낸 편지였다. 소로우보다 한 살 연상이던 블레이크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빈둥거리며 삶을 소비하는 실패자로 평가 받던 소로우의 위대한 정신을 알아보고 그에게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두 사람의 편지는 소로우가 생을 마감 때까지 13년 동안 계속되었다. 첫 한 편만 블레이크의 것이고 나머지는 소로우의 편지다. 그 편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바로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이다.



소로우가 살던 콩코드의 오두막 일면.

블레이크는 소로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자신의 불안한 영혼에 대해 토로하며, 더 진실하고 순수한 삶을 일깨워 주기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소로우는 우리가 삶에서 슬픈 이유는 삶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진정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지 못해서라고 답한다. 자연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전 생애에 걸쳐 영적 진리를 추구한 소로우의 구도자적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편지들은 그가 얻은 깨달음과 삶의 지침이 담겨져 있다. 내용이 짧고 일상적이지만, 대다수의 편지들이 그의 독립심, 수행, 자연과의 교감, 그 자신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 등 소로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들을 다루고 있는 것도 이 책에서 눈여겨 볼만한 점들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신과의 개인적인 약속을 실천해야만 한다고 믿은 소로우는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특히 영적인 믿음에 대해 허식을 부리는 것을 경계했다. 이 책의 편지들에는 소로우의 영적인 사상들이 정면에서 그리고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블레이크가 소로우에게 영적인 스승을 대하듯 다가갔기 때문이다.

블레이크와 더불어 소로우의 이 편지들을 받는 사려 깊은 독자들은 정신의 자극을 받고 생의 영감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 정교한 내림자라도 이 편지들은 지혜의 서간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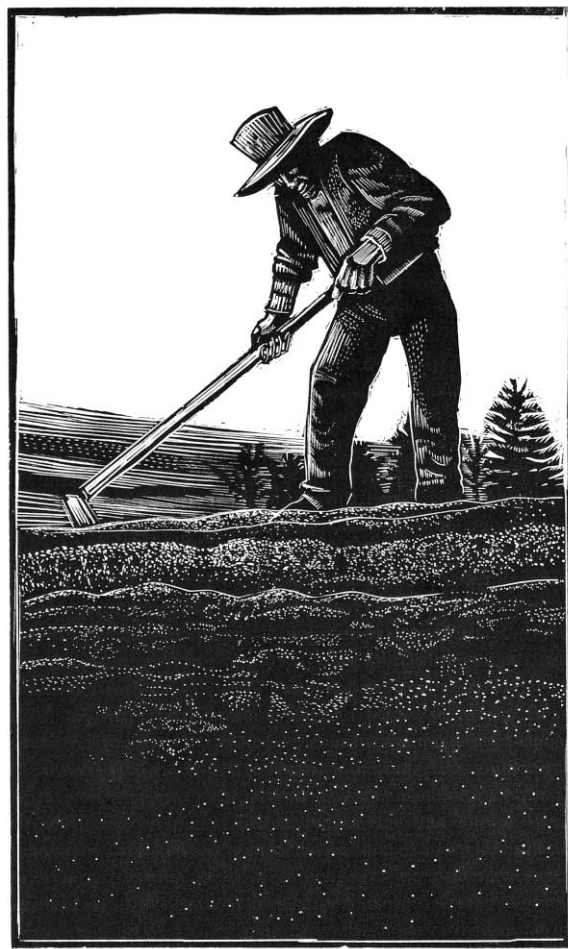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일 장작 몇 개를 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것과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신성한 불을 지필 수 없다면?"과 같은 소로우의 말은 삶의 지혜 그 자체다.

류시화 시인의 한층 물이 오른 번역도 이 책의 깊이를 더해준다. 류씨는 영어를 한글로 옮기는 단순 번역을 뛰어넘었다. 그 중거가 바로 책 속의 편지마다에 소로우의 다른 책이나 삶에서 연관이 있는 글이나 말, 자신의 생각을 주석 형식으로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윌드 숲을 찾아가는 소로우를 만나게 해준다.

윌드를 깊이있게 읽은 '내공' 있는 독자라면 이미 곳곳에서 눈치를 챘을 것이다. 소로우는 '바가바드 기타'와 '우파니샤드' 등 인도경전을 곁에 두고 살았지만 영적 체험은 지극히 내면적인 것으로 여겨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윌드에도 수많은 암시를 심어놓았다.

이 편지들을 구도자로서 소로우의 모습을 접할 수 있다는 데 기왕의 그의 책에서 가졌던 미진한 감동을 풀어준다. 예컨대 "필요하다면 신조차도 홀로 내버려두라. 나는 만일 그를 더 사랑한다면 그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거리를 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을 발견하는 것은, 그를 만나러 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단지 그를 홀로 남겨두고 돌아설 때입니다"같은 구절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내가 가진 부는 무한하다. 왜냐하면 나의 재산은 소우가 아니라 향유이기 때문이다'고 말한 소로우는 자신의 고향 콩코드에서 손수 밭을 일구는 등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1817년 7월 12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콩코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생각이 깊었으며 아름다운 콩코드에서 태어난 것을 무엇보다 큰 행운으로 여겼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으나 부와 명성을 좇는 화려한 생활을 따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 속에서 글을 쓰며 인생을 보냈다.

소로우는 생전에 자신의 저술로 어떤 경제적인 성공이나 명성을 얻지 못했지만 콩코드의 윌드 호숫가에서 통나무집을 짓고 생활한 2년간의 경험을 기록한 <윌드>는 19세기에 쓰여진 가장 중요한 책들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인두세 납부를 거부해 수감됐던 사건을 통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 권력의 의미를 깊이 성찰한 <시민의 불복종>은 세계의 역사를 바꾼 책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그의 문화적, 사상적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요즘에 와서는 19세기를 살았지만 21세기적인 환경의식을 지녔던 사람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 1862년 5월 6일, 결핵으로 44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

"우리가 삶에서 슬픈 이유는 삶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진정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일 장작 몇 개를 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것과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신성한 불을 지필 수 없다면."

지식인의 죄와 벌

피에르 아술린 지음 | 이기연 옮김
두레 펴냄 | 1만2천8백원



기억은 주관적이다. 그것은 처음과 끝이 달라 때론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내가 기억하는 것과 당신의 그것이 달라 서로를 등지기도 한다. 뒤섞이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며 편이에 따라 지워지기도 한다. 한 사람만의 내밀한 경험으로 감춰 있을 수도 있으며, 연인 사이의 추억처럼 너와 내가 공유하는 애뜻한 무엇일 수도 있다. 언젠가의 광주처럼 도시 전체가 떨리는 눈으로 낱방을 맞아들여야 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축구공 하나에 나라 전체가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결는 것일 수도 있다.

무너지는 빌딩을 보던 처연한 눈으로, 그러나 이제는 뛰는 심장을 쓰기 위해 가슴자를 노려보는 눈으로. 기억은 그렇게 변한다. <지식인의 죄와 벌>은 기억, 그 가운데서도 시대의 기억을 책임지는 기자와 작가의 책임을 묻는 책이다. 책은 공평하다. 1944년 8월에서 이듬해 12월까지 프랑스에서 나치에 부여한 지식인들에 대한 숙청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이 저마다의 '말의 무게'를 가진 채 '대속형'을 향해 달려간다.

시대의 기억을 책임지는 자여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 출신의 작가 알베르 카뮈가 펜을 든 것은 파리가 해방을 맞은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서다. 1944년 8월 30일 카뮈는 납탈자 자국이 선명한 낱신 신문 사설 하나를 내놓는다. "이 자리에서 어느 누가 감히 용서를 거론할 것인가? 같은 칼로봐에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서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잊어버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내일을 담보해 주는 것은 증오가 아니라 기억에 근거한 정의의 자제이다."

'기억의 정의'를 요구하는 한 권에선 "우리는 학살자와 희생자의 헛바퀴보다는 더 나은 것을 바란다"(프랑스어 모리이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논리가 고개를 든다. 그러나 프랑스는 단호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불행은 반역을 처벌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다. 어제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곧 내일의 죄를 부추기는 것이다."<프랑스 문예>

프랑스는 때론 비이성과 권력의지가 혼합된 숙청을 감행하기도 했지만 동족에게 칼을, 이민족에게는 탐욕한 권과 혀를 굴렸던 부역자들을 '기억' 하는데 결국 성공했다.

프랑스에서도 악몽처럼 머리를 짓누르며 기억을 왜곡시키려는 헛된 노력들이 있어 왔다. 지은이는 "부역자들이 저지른 잘못과 범죄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숙청 주도자들의 잘못을 거론하려고 기를 쓰는 자들"을 기억하려고 딱 잘라 주문한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이 책의 부제는 '글 쓰는 것과 말하는 것의 두려움'이다. 그러나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자들이다. 모든 기억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옳은 기억은 정의를 보장한다.

누구 말처럼 "도둑같이 뒤편에 찾아온" 우리의 해방은 어떠한가. 그 해방공간의 기억은 누구의 것이며, 지금-여기 반민특위의 좌절조차 남의 기억으로 대신하는 당신은 누구인가.

김남일(한겨레신문 사회부 기자)

동천사 불교대학 송파시민선원

교육목적
간화선(참선)으로 무명속에 있는 참마음을 찾아 생활속에서 얻은 스트레스 및 화를 소멸하여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교육과목
1. 불교학개론, 선학, 반야, 금강경
2. 벽암록, 무문관, 전등록, 육조단경 등

※ **확실한 참선 지도**

- 법 어 : 동천사 조실스님
- 지도교수 : 차차석, 김영덕 교수 외 다수.
- 선 원 장 : 금봉

교육과정 3개월
모집기간 수시모집
문의 송파시민선원 02)420-5009

아무런 조건없이 병의 고통을 받는 여러 불자님들께 청정한 황토물 감로수(지장수)를 무료로 드립니다.

청정한 우리 사찰에서는 이해 못할 불가사의한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와 보물영각과 백의관세음보살의 기도 가피 원력으로 마음병, 몸의병 (특히 위장병, 장병, 변비 같은 만성질환 등), 아토피 피부병 환자들이 왕림하셔서 정진기도와 감로수 물을 드시고 많이 좋아 지셨습니다.

청정 감로수 물(지장 水: 사찰내에서 부르는 이름)은 기도 중 백의관세음보살님께서 이 물로 많은 중생을 건지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본 사찰에 방문하시는 분들께 황토물 지장수를 드려 줄 때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많은 불자님들께 지장수를 드려 병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겠다고 발원하였습니다. 나쁜일을 지으면 인과응보를 받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치악산 포교당 연화정사는 자비의 마음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항상 선행을 행하며, 부처님 정법포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천안 방향을 타시고 성환역에 하차하시어 우신 1리 연화정사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치악산 상원사 포교당 연화정사
041)588-7779, 010-6772-7485

불교의식(범음범패) 수련생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범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단기속성반 3개월 과정 (제21기)
● 교육방법 : ① 출강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교육내용

① 송주편(도량서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 · 조석예불 · 각단예불 · 향수해례 · 사성례 · 신중단 등)
③ 현공편(삼보통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성 등)
④ 재의식편(천도제 · 49제 · 시다립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제출 (현재 접수중)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 개강일시 : 4월 7일 (목) 오후 2시, 본대학 강의실(육락, 필기구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한국불교범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 (한선빌딩 3층)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문의 전화 02)720-1836 733-1959